

1부 철학과 나

1. 철인이 다스리면 무엇이 다를까 ----- 플라톤 <국가>

아름다운 소년, 알키비아데스

이데아를 배워야 한다.

철학자로 태어나다

플라톤의 이상국가

2. 우상을 파괴하라 ----- 베이컨 <신논리학>

헤라클레스의 기둥

- 기존의 한계를 깨부수어야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베이컨은 그렇게 하고자 했다. 기존의 사상과 이론을 부수고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려 했다.

포스트 아리스토텔레스

- 베이컨은 아리스토텔레스학으로 변질된 모든 철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철학이 다시 태어나려면 백지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우상을 파괴하라

- 베이컨은 <신논리학>에서 우상(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파괴를 역설하고 우상을 파괴한 인간이 걸어야 할 길로 歸納法을 제시했다.
- 종족의 우상 : 인간 자체가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오류다. 즉 인간이 가진 주관성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사물을 잘못 인식하는 오류다. 인간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을 객관적 진리로 착각한다.
- 동굴의 우상 : 동굴의 우상이란 평생을 동굴에서 살던 사람이 세상에 나왔을때 개인의 주관이나 선입견을 가지는 폐단을 말합니다.
자기나름의 습관, 성격, 취미, 환경, 교육 등에서 생겨난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과 협동하고 상호비판을 통해서 이 우상을 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 시장의 우상 : 베이컨은 말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했다. 잘못

된 언어 사용은 우리에게 편견을 심어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귀신, 도깨비, 용, 봉황과 같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것들이 자주 언어로 표현됨으로써 마치 정말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시장의 우상 때문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오가면서 소문과 과장이 끊임 없이 낱이 없다. 그래서 베이컨은 시장의 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 극장의 우상 : 유명세, 전통, 권위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입니다.

교수나 유명인, 권위가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극장의 우상에 빠지게됩니다.

- 종족의 우상이 '인간이라는 종이 가지는 특징 혹은 한계'에서 비롯된다면 극장의 우상은 '종족의 우상이 기저에 작용하여, 그 종족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총합' - 즉, 학문이라는 '집단적 사고'의 결과물에서 발생합니다. 예컨대,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다' / '파충류는 역겹다'라는 것이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종족 특유의 본능(종족의 우상)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는가?'에 대한 '사고의 축적'이 만들어내는 체계' 그 자체가 극장의 우상입니다.

이제 누군가 '하늘을 나는 인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과 직관에 근거하여 '그런 인간은 없어! 있다면 과연 그게 인간인가?'라는 거부감을 가진다면 이건 종족의 우상 때문입니다. 이 때, 학자가 등장하여 잘못된 지식 체계 혹은 권위로 '그런 건 존재할 수 없다'라고 뒷받침한다면 그것이 극장의 우상이 됩니다.

천동설처럼 직관의 규모를 넘어서는 판단은 당연히 극장의 우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동설의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뿐, 당대의 지식인들은 지동설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즉, 극장의 우상이 학문 체계에서 비롯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학문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천동설이라는 극장의 우상을 지지하는 여러 학문 중 신학이라는 정치적인 학문의 힘이 강하지 않았다면, 갈릴레오 재판 같은 극적인 사건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천동설은 당대에는 최신 과학이었고 이론적으로 훨씬 세련된 것이었습니다.

위에서 '정치적인'이라고 말했듯이, 현실 세계에서는 한 가지 원인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종족의 진화적 설계에 내재된 편향성(종족의 우상), 개인의 학습에 의해 습득된 편향성(공굴의 우상), 언어의 한계 등 도구적 한계에 의한 인지 능력의 한계(시장의 우상), 집단 사고 체계의 권위에서 비롯되는 인지 능력의 한계(극장의 우상)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라는 종에 속함과 동시에 무한정 학습할 수 없으면서, 언어라는 도구를 쓰고, 필요에 의해 권위를 쓰기 때문입니다. 천동설도 그저 극장의 우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뿐, 그 신학의 권위를 시장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 종족의 우상의 뒷받침한다는 것이 명확하죠.

1. 종족의 이상

인간 중심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로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보며 '아, 저 새는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보고 싶은거 다 보고 다니니까 행복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새가 정말 자유로운지, 정말 행복해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순전히 인간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죠.

2. 동굴의 이상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죠. 동굴의 이상도 비슷합니다. 자신의 좁은 경험을 통한 해석으로, 대표적인 예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있습니다.

더 가까운 예를 들어볼까요? 해외여행이 전무한 사람이 동해 바닷가를 산책하며 '아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닷가인거같아!' 라고 단언하는 식입니다.

3. 시장의 이상

실제로 관찰하지 않고 언어에 의해서 선입견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와 이름을 연관지어 기억하시면 쉬운데요. 시장에 가면 시장 전체 가게를 둘러보지 않았는데도 '옆집보다 싸다', '옆집은 좋지 않는 재료를 쓴다' 등의 호객행위를 많이 들을 수 있죠. 여기에 혹하게 되면 시장의 이상에 빠진 것입니다.

4. 극장의 이상

유명세, 전통, 권위 때문에 생기는 선입견입니다.

교수나 유명인, 권위가 있는 자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극장의 이상에 빠지게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 자연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을 주장한 베이컨의 정신은 근대 자연과학의 정신이며, 자연과학을 발전시킨 정신이었다.

3. 생각하는 나의 탄생 ----- 데카르트 <방법서설>

모든 것을 의심하라

-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데카르트는 감각을 불완전한 것으로 보았다. 감각을 통해 받아들인 것은 의심스러운 것, 회의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감각을 초월해 진리에 가까이 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데카르트는 이성이라고 말한다.

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았다

- 진리에 다가가는 데카르트의 방법론은 수학과 연역의 방법이다.
- 의심할 수 없이 단순하고 편견 없이 명증한 것이 데카르트에게는 진리였다. 그러나 단순은 복잡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복잡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데카르트에게는 수학적 사유라는 논리체계가 있었다.

코기토 에르고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 자명한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다른 것에 대한 증명을 해나가는 방식을 연역법이라고 한다. 데카르트는 신의 존재를 인간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이끌어내어 증명한다. 신은 완전하므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서 신으로부터 인간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중세의 시도를 뒤집은 것이다.

4. 이성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칸트 <형이상학서설>

대중성이 없다고?

- 칸트는 <순수이성비판>의 난해성 때문에 해설서로 <형이상학서설>을 썼다.

칸트를 떨게 한 흄

- 형이상학의 개념들에는 아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흄의 비판 앞에 모든 것을 의심하여 자명한 진리만으로 사유하겠다고 다짐했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은 무너져 내렸다. 흄은 형이상학뿐만 아니라 뉴턴의 물리학에 대해서도 사망진단서를 발부했다. 모든 인식은 원인과 결과에 기초한다. 그런데 인과율은 객관적 자연법칙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법칙에 불과하다. 만일 흄이 옳다면 뉴턴의 과학마저 공상이 된다. 이 무서운 선언 앞에서 칸트는 떨었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

- 지금껏 철학자들은 사물에 대한 인식이 그 사물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칸트가 이런 가정을 뒤집어보라고 했다. 사물이 어떤 질서를 갖게 하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의 정신이다. 인간은 대상을 수용하고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형상을 부여하고 구성한다. “질서는 대상에 내재한 것이 아니라 위가 부여한 것”이라는 전복을 통해 철학사에 혁명을 가져왔다.

물자체의 효용

- 칸트는 모든 사물에는 인식을 통해 드러나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 인식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 물자체의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인간은 신체의 감각을 이용해서 사물과 만나기 때문에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는 물자체와 결코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은 자유의지다. 자유의지는 물자체이고 인과율을 넘어선다. 이런 칸트의 사유에 따라 근대과학의 인과율도 살고 인간의 자유의지도 살게 된다. 칸트는 이제 형이상학이 근대 과학과 나란히 서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 칸트는 우리의 인식능력은 경험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본다. 신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 속에 있지 않다. 신은 우리의 인식 너머 물자체에 있다. 이성인 신을 인식하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경험적 인식으로 신을 사유하려는 것은 모순이다. 신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사물, 즉 물자체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신이 나의 사유와 무관하게 정신 밖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리는 신의 존재를 입증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다. 오직 신을 믿을 따름이다.
- 뉴턴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 번 창조된 우주 안의 행성들은 우주의 운동법칙에 따라 움직인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종교와 과학의 갈등을 푸는 뉴턴식 타협안이었다. 인간의 이성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는 끝없는 유혹에 부젓힌다. 그러나 칸트는 인간의 이성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종교를 이성의 영역 바깥으로 몰아냈고,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고 선언함으로써 종교를 신앙의 영역에 머물게 했다. 이것이 종교와 과학의 갈등을 푸는 칸트식 타협안이었다. 이것은 근대 과학과 종교적 감정을 동시에 옹호하려던 칸트의 고민의 결산이었다.

5. 우리는 일상생활을 한다 -----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몸의 철학자

- 메를로퐁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한 철학을 발견하라며 우리 자신을 일상생활과 결부시켜 파악하라고 한다.

전통적 선입견을 넘어서라

- 메를로 퐁티는 주체와 객체의 이원론이라는 서양철학의 전통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天人合一을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주체와 객체가 결부된다고 말했다.

원근법은 사실을 왜곡한다

- 원근법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유행한 그림 기법이였다. 가까운 것을 크게, 먼 것을 작게 그림으로써 그림에 입체감을 붙여넣는 기법이다.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 동안 인정받은 원근법을 폴 세잔이 뒤바꾸는 혁명을 일으켰다고 메를로퐁티는 평가했다.
- 똑같은 사물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인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몸 밖의 어떤 지점에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인 눈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의 몸을 배제한 인식은 사물을 왜곡할 뿐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처럼 우리는 몸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 메를로퐁티가 그림에 주목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똑같은 사과를 보고도 화가들은 다른 그림을 그린다. 우리가 몸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그림이다.

이분법에 반대하다

메를로퐁티는 경험주의 철학과 지성주의 철학에 반대한다. 메를로퐁티는 인식에서 우리의 몸이 담당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경험주의나 지성주의 철학들은 몸을 연구 대상으로만 파악했다. 이에 반대하여 메를로퐁티는 몸이 대상이 아니라 주체라고 말한다. 몸은 생활세계와 유기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즉 우리의 몸은 일상생활 속에 있다. 그래서 메를로퐁티는 인간을 생활세계와 분리시키는 이분법적 사고에 반대했다. 경험주의 철학은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경험으로 인식하는 인간이 있다는 이분법, 지성주의 철학은 인간이 있고 인간의 인식에 의해 구성되는 세계가 있다는 이분법을 전제로 한다. 메를로퐁티는 이런 이분법에 반대한다.

2부 철학자의 인간 탐구

6. 꿈꾸는 자만이 실패할 수 있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 쉽게 배울 방법이 없느냐는 알렉산드로스의 물음에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고 대답한다. 배움의 길에는 왕도, 즉 왕의 길이 따로 없다. 배움의 길은 똑같다.
- 플라톤은 현실 바깥에 있는 '이데아'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했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대표작인 <정치학(Politika)>는 그리스에 있는 158개 도시국가를 조사하여 자료를 모았다. <정치학>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리케이온에서 제자들에게 강의한 내용을 묶은 책이다. <정치학>의 주제는 바람직한 도시국가다.

가장 단순한 공동체, 가족

-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이 주장한 공산주의를 비판했다. 플라톤은 국가를 통치하는 집단들은 재산과 부인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재산을 공유하면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가 공동으로 혜택을 보게 되어 불만이 생긴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가진 자가 베푸는 즐거움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플라톤의 주장에 반대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되, 이용은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재산의 소유는 도시국가의 정치와 관련해서도 중요하다. 재산은 사람들에게 여유를 만들어 준다. 재산이 없으면 먹고사는 일에 매달려 정치적인 주제를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현명한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 한다.

이상적 국가, 현실적 국가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7. 진리는 인간의 내면에 깃들어 있다

-----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론>

듣고 읽어라

- <고백록>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의 기록이다.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고백하고 참회했다. 그리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삶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밖으로 나가지 마라

-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각을 가진 인간, 자기가 경험한 대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있는 그대로의 인간이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내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아갈 때 내 영혼의 눈은 비록 희미하지만 내 정신 위에 두루 비치는 빛을 보았습니다. 이런 철학에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신의 생에 대해 아무런 변명 없이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자서전을 쓸 수 있었다.

누구나 죄인이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예정설을 도입한다. 모든 인간의 행위나 운명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다. 따라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게 된다. 인간은 신의 결정에 따라 구원받기도 하고 단죄받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의 신비 앞에 머리를 숙여야 한다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결론을 내렸다.

기억의 창고

- 신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 지상에는 영원이 존재했다. 영원은 천지창조와 함께 소멸되었다.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구분은 유효하지 않고 다만 현재라는 시간만 존재한다. 과거는 현재의 기억으로, 미래는 현재의 기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 아우구스티누스는 진리를 통해 불안을 쫓고 평화를 느꼈다.

8. 강력한 국가가 필요하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군주론>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 오늘날 마키아벨리는 정치사상과 윤리를 구별한 사람으로 평가받는다. 마키아벨리는 실제 정치 과정에서 폭력이나 기만이 있게 마련이므로 정치사상에서 그런 폭력이나 기만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마키아벨리는 정치사상을 현실의 토대 위에 세우고자 했다.

르네상스의 아들

- 어떤 역사적 사실은 그 사실이 발생한 시대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만 바로 이해될 수 있다.
- 르네상스의 핵심은 '인간의 발견'이다. 덕분에 정치사상도 신학적인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치가 항상 윤리적인 행위, 도덕적인 행위가 될 수는 없었다. 과감하게 이런 주장을 처음으로 펼친 것이 마키아벨리였다.

위대한 군주의 두 가지 덕목

- "인간은 두려워하는 자보다 애정을 느끼는 자를 더 쉽게 배반한다." 군주는 이런 인간의 본성을 염두에 두고 통치해야 한다. 항상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가장해야 한다. 본심을 드러내면 국민이 군주의 본심을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군주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보다 존경을 받아야 한다. 신하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조언이 필요하면 항상 소수에게 은밀히 구해야 한다. 그리고 신하들을 통제하기 위해 항상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 마키아벨리는 폭력이나 기만을 결코 찬양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주는 국가를 위해 폭력을 단호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키아벨리는 한니발을 예로 들었다. 한니발의 비인도적인 잔인성 때문에 한니발 군대 안에서 병사들 간의 내분이나 지휘관에 대한 모반이 없었다.
- 군주에게는 두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한편으로는 인자하고 자비로워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잔인해야 한다.

9. 국민은 왕에게 너무 많은 것을 위임했다

----- 홉스 <리바이어던>

모든 거만한 것들의 왕

-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국가론이다. 왕권옹호와 새로운 국가체계에 대한 희망, 그 이질적인 열망이 <리바이어던>의 집필로 이어졌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 홉스의 사회계약설에 의하면 왕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그런데 홉스는 사회계약설을 주장하면서도 절대군주제를 강력히 옹호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위임한 이상, 그들에게 남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순종뿐이다. 서양 역사에서 17~19세기는 '시민혁명의 시대'였다. 시민혁명에는 혁명적인 이념이 동반한다. 당시의 이념은 주권재민론,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이념, 법 앞에서의 평등등이 새로운 시대를 떠받드는 이념이었다. 이런 이념들은 '자유주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었고 자유주의 이념의 핵심은 사회계약설이다.

아비규환의 현장, 자연상태

- 홉스는 자연 상태가 전쟁과 투쟁의 아비규환이기 때문에 이를 막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국가가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 목적에 가장 적합한 정치형태가 군주제다.

사회계약설의 선두주자

- 로크는 자연 상태가 평화롭고 살만하지만 불안하다고 보았다.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안전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약'을 맺었다. 계약의 결과 국가가 생겨났다. 로크에 따르면 국가의 주된 목적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다. 따라서 절대 권력이 필요하지 않다.
- 루소 역시 계약을 통해 국가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여기서 루소는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등장시켰다. 일반의지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위임하는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복지를 위한 보편적인 의지인 셈이다. 이런 일반의지, 보편적 의지의 구현체가 국가다. 때문에 루소는 국가가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 외에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데도 힘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치자가 일반의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국민을 억압한다면 물러나야 한다. 국민은 주권자를 몰아낼 수 없다는 홉스의 주장과 통치가 일반의지를 실현하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는 루소의 주장은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셈이다.
- 홉스의 주장은 관찰이 아니라 논리적 추론을 통해 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10. 누가 신을 죽였는가

-----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플라톤은 죽었다

- 맨 먼저 신의 죽음을 말한 사람은 니체가 아니라 헤겔이었다.
- 유럽의 정신을 노쇠하게 만든 주범은 플라톤 이래의 합리주의와 기독교의 노예 도덕이다. 그래서 니체에게는 '신이 죽어야 했다.' 신이 존재하는 한, 인간은 신의 노예일 수밖에 없으니까.

신은 어떻게 죽었는가

- 니체가 말하는 신의 죽음은 절대 가치의 상실을 의미한다. 즉 니체는 영원한 진리, 세상을 지배하는 절대적 가치가 사라졌음을 말하고자 했다. 그런 가치가 사라졌으니, 현실에 눈을 돌리자!
- 인간은 자신의 추악함을 드러냄으로서 신을 죽이고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다. 인간은 신이라는 권위를 빌려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에 신의 권위를 덮어씌워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짜라투스트라는 신의 죽음을 선물로 받아들인다. 신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인간이 위대해졌음을 의미한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신을 찾지 않을 정도로 위대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초인은 어디에

- 니체가 짜라투스트라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려던 것은 超人, 권력에의 의지, 영원 회귀다.
-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육체적 능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자신을 초월한 자, 자신을 자신 안에 가두지 않고 자신의 밖에서 바라보는 자다. 때문에 초인은 자신의 무계와 한계를 알고 그 덕분에 자신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권력에의 의지

- 권력에의 의지는 니체 철학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니체는 권력에의 의지를 이 세계의 근본적 본질이라고 말한다. 권력에 대한 의지 앞에서는 이성도 도덕도 무력하다. 권력에의 의지는 세계의 근본적 본질이며 인간의 사고를 규정하는 근본이다.

영원히 회전한다

- 세계는 일직선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나아갔다 되돌아오고 되돌아왔다 다시 나아간다. 영원히 순환하는 것이다. 이런 니체의 운동관은 세계가 앞으로 진보할 뿐이라는 낙관적 합리주의, 과학의 발전으로 세계는 계속 발전한다는 과학주의에 대한 준

엄한 비판이다.

- 짜라투스트라는 기원전 700년경 고대 페르시아에 살았던 예언자다. 미신을 타파하고 조로아스터교를 전파하려 했던 종교개혁가였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를 통해서 초인의 모습을 발견하고자 했다. 더욱이 니체는 자신을 짜라투스트라와 동일시하여 짜라투스트라와 같은 초인이라고 생각했다.

3부 세계를 읽는 눈

11. 내가 아니라 세계정신이 너를 인도하리라

----- 헤겔 <역사철학 강의>

철학에 재능 없는 대학생

영웅이 역사의 주체인가

-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한다. 헤겔은 이런 상호작용을 설명하기 위해 정-반-합이라는 변증법을 사용한다. 이 변증법을 역사의 흐름에 적용한 책이 <역사철학 강의>다.
- 역사에 대한 헤겔의 기본관점은 역사가 이성적으로 진행되어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이성적으로 진행시켜온 힘은 세계정신이라고 했다. 세계사는 세계정신의 이성적이고 필연적인 운동과정이다.
-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 나폴레옹, 왕건, 이성계 같은 사람이 그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연이다 그러므로 위인들이 역사의 주체가 되려면 역사는 우연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헤겔은 이런 역사 인식을 거부한다. 헤겔은 우연적인 것의 배후에 흐르는 필연성, 즉 역사를 이끄는 힘을 포착하고자 했다.

역사를 인도하는 것은 세계정신이다.

- 세계정신은 다른 것의 도움 없이 자기 자신을 실현해 갈 수 없다. 위인들은 바로 세계정신이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다. 위인들은 개인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행동하지만 그 행동을 통해 보편적인 일을 수행한다.
- 헤겔 철학의 매력은 한 개인이 역사를 이끈다는 관점을 거부하고 역사를 이끄는 힘을 발견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그 힘은 세계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안에, 그래서 역사 안에 존재한다.

세계정신은 어떻게 구현되는가

- 헤겔은 봉건제도의 파괴와 자본주의 확립이라는 2대 과제를 지지했다. 비록 입헌군주국가가 봉건제도를 완전히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자본주의 성립과 발전을 보호했기 때문에 헤겔은 입헌군주국가를 지지했다.

12. 언어놀이를 통해 철학이 사라졌다

-----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우리가 스마트폰을 안다고

- 일상의 대화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본질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사용하기 이전에 언어 놀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철학의 대상을 다시 전환하다

-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세계를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들'의 총체라고 말한다. 세계를 알려면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사실들은 '이것은 책상이다'처럼 명제로 표현된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 이렇게 썼다. "모든 참된 명제를 드러낼 수 있으면 세계를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다. 사실들은 명제로 드러나므로 명제의 참, 거짓을 가리면 진리를 알 수 있다. 명제의 참, 거짓을 알려면 언어의 논리적 관계를 따지면 된다.
- 명제는 세계를 탐구하는 과학에서 나와야 한다. 자연과학에서 나오지 않는 명제는 알 수 없고, 알 수 없으면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자연과학의 명제 이외에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썼다.

철학의 왕국이 붕괴하다

-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은 언어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언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같은 단어라도 뜻이 다르다. 그렇다면 언어의 논리적 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이 전기 철학을 부정했고, 나아가 전통적인 철학 자체를 무너뜨렸다.
-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자체를 탐구했다. 인간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언어를 배운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워가는 과정과 같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놀이'로 설명한다.
- 인간은 다양한 언어 놀이에 참여하여 언어를 배운다. 언어를 명확하게 하려면 언어

놀이에 참여하여 단어와 문장의 의미가 어떻게 생겨나고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런 활동이 철학의 임무다. 이에 따라 인간과 세계의 심원한 의미를 파헤치고자 했던 철학은 막을 내린다. 비트겐슈타인에 의해 철학의 왕국은 무너지고 일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자는 깃발만 남았다.

생각을 생각하다

-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최면에 빠지지 말라고 한다. 언어를 통해 모든 것을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 상황과 문맥에 따라 '생각'이란 말의 용법이 다르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문맥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하는 철학은 낱말들을 기술하는 것이다. "모든 설명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술이 들어서야 한다."

13.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스키를 잘 타는 철학자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 하이데거는 자기 자신을 문제 삼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존재를 '현존재'라고 말한다. 오직 인간만이 현존재일 수 있다. 현존재로서의 삶을 '본래적 삶'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 본래적 삶'을 살아간다.

세계-내-존재

- 데카르트 이전의 근대철학은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분리했다. 그러나 하이데거는 우리가 어떤 존재를 인식하거나 지각하기 이전에 이미 일상에서 그 대상과 관계한다고 말한다. 주체와 대상은 이미 일상의 삶 속에서 서로 부딪히며 관계하고 있다.
-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관계를 맺는다. 하이데거는 이런 도구적 관계 맺음을 비본래적 삶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 하이데거는 일상의 세계와 근원적인 세계가 있다고 말한다. 물론 두 세계가 분리된 것은 아니다. 도구적 관계 맺음이 일상의 세계이고 내 몸과 같이 관계 맺음이 근원적 세계다. 하이데거는 일상의 세계를 넘어 근원적인 세계로 가자고 한다. 그것은 비본래적인 삶을 넘어 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

- 죽음에 직면한 사람은 절박한데 주변에서는 '자연적 사건'의 하나로 바라본다. 주변의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고 홀로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 처한 개인을 하이데거는 '고독자'라고 했다. 고독한 개인은 자기를 되돌아보고 세속적 욕망이 아닌, 자기가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 이제까지 추구했던 삶이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다.
- 하이데거는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면 본래의 자기를 일깨워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된다고 했다. 이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인간은 내적인 변혁을 이루게 된다.

14. 질문하라, 대화하라, 토론하라! -----가다머 <진리와 방법>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없다

- 가다머는 질문을 통해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가다머는 고전을 읽고 해석하면서 자신의 철학을 세워 나갔다. 가다머는 12년간 방대한 양의 고전을 읽고 질문을 하면서 답을 정리하여 1960년에 <진리와 방법>을 썼다.

선입견은 정당하다

- 가다머는 이미 알고 있는 것,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지식의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 그리고 선입견의 정당성을 권위와 전통에서 찾았다. 가다머는 선입견과 권위 그리고 전통에 대한 긍정을 인간이 시대적, 상황적 존재임을 말하고자 했다. 따라서 인간은 어떤 세계에 사느냐에 따라 알고 있는 것, 생각하는 것이 달라진다. 선입견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의 문화, 전통, 지식 등에 의해 형성된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은 사건을 대하고 사물을 바라본다.

대화는 우리의 무지함을 알려준다

- 가다머는 '시간적 거리두기' 통해 올바른 선입견과 잘못된 선입견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적 거리를 두고 이해하는 일을 가다머는 '역사의식'이라고 했다.
- 가다머는 질문 못지 않게 대화를 중요시한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그 가치를 인

정해야 대화가 이루어지고 의견 일치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대화할 때는 열린 자세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의 주장을 간과하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는 최종적인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대화는 항상 새롭고 보다 나은 이해를 도와주는 것이다.

- 가다머는 진리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실증주의에 반대한다. 이른바 과학적 방법을 통해 획득한 객관성이란 그 방법이 전제로 삼고 있는 선입견과 마찬가지로 부적절하다. 진리에 이르는 객관적 방법은 없다. 이미 가진 생각, 즉 선입견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진리를 알아갈 뿐이다. 그래서 가다머는 말한다. “질문과 대화와 토론은 그 자체가 이성의 진보를 촉진한다.”

15. '관심'에 관심을 갖자 ----- 하버마스 <인식과 관심>

독일의 철학 전통과 갈라서다

- 하버마스는 신문 지상에 글을 발표하여 하이데거의 정치의식(히틀러 옹호)에 대해 준엄한 비판을 했다. 그와 동시에 하이데거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의 철학적 전통과 갈라섰다. 하버마스는 독일의 철학적 전통을 계승했다는 자들이 대중을 경멸하고 절대자나 비범한 인물을 찬양하면서 대화, 평등, 자율적 결정을 거부하고 침묵과 명령 그리고 복종 등을 강요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철학보다는 부르주아사회에 대한 분석과 비판에 치중하여 다량의 논문과 저서를 발표했다.

4부 국가의 탄생

16. 찾아야 할 곳에 대한 영원한 손짓 ----- 모어 <유토피아>

유토피아라고 불리는 새로운 섬

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

- 모어가 살던 당시 영국과 플랑드르에서 모직공업이 발전하면서 양털 값이 폭등했다. 영국의 영주와 대지주들은 밀밭을 초지로 바꾸어 양 떼를 키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유지에 울타리를 치고 둘러막았다. 그래서 그런 현상을 우라리치

기운동, 즉 인클로저 운동(enclosure movement)이라고 불렀다. 이로부터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에서 쫓겨났다. 농민들은 기만, 협박, 학대에 못이겨 자신의 토지를 포기했다.

여섯 시간만 일하면 되는 나라

17. 행복하기 위해 정부가 생겨났다 ----- 로크 <통치론>

- 인간의 존엄성이 인정되고 국민에 의해 권력이 구성되는 시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자각과 그 자각을 뒷받침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로크(Jone Locke, 1632~1704)의 국민주권 사상이다.

하느님은 아담에게 지배권을 주지 않았다

- 신은 아담에게 나라를 다스릴 지배권을 주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왕은 아담으로부터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왕의 권력은 신이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로크의 주장이었다.

자연상태에서 국가로

- 로크는 정치권력의 기원을 자연 상태에서 찾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를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라고 말한다. 이 지점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일어난다는 홉스의 주장과 달라진다. 홉스의 주장과 달리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행동을 규율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고도 했다.
- 그런데 화폐가 생기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화폐는 썩지 않고 얼마든지 축적할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근면함의 차이가 있어서 재산의 많고 적은 정도에 차이가 생기게 되었다. 소유물에 차이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자도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그런 행위를 처벌할 공통의 권력이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게 된다.
- 로크는 자연 상태의 결함을 세 가지로 요약한다. 법률, 재판관, 권력이 없다. 생명과 자유와 재산이라는 자연권을 안전하게 누리기 위해, 서로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법률과 재판소에 호소하기 위해 사람들은 개인의 처벌권을 포기하고 정부에 일임하게 된다.
- 정치권력은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의 동의에 의해 성립한다. 그래서 로크는 정치

권력을 공공의 복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주권의 탄생

- 로크의 사상은 민주주의의 모태가 되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태어났음을 천명했다. 또한 로크는 창조주가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했고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생겨났다고 말한다. 그리고 정부의 권력은 국민의 동의로부터 온다고도 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로크 사상의 축소판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로크의 사상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라났다.

18. 인간은 자유로게 태어났다 ----- 루소 <사회계약론>

키콜롭스의 동굴

- 정치철학서인 <사회계약론>은 1762년에 출판되었다.

숲속에서 강도를 만난다면

- 루소의 자연상태는 로크의 자연상태보다 더 자유롭고 평등하다. 인간의 본성에 대해 루소는 원래 착하다고 했다. 그런데 자연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이행하면서 정치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생겨났다. 불평등이 생겨난 이유는 사유재산 때문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이끈 사상

- 루소는 정당한 국가 권력과 관련하여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일반의지란 사람들이 맺은 계약에 의해 성립된 의지를 말한다.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일반의지에 위임한다. 국가권력은 계약에 따라 이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의지는 결코 나눌 수 없다. 따라서 일반의지를 실현하는 국가 권력 역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루소의 주장은 삼권분립을 주장하는 로크나 몽테스키외의 주장과 다르다.
- 루소가 삼권분립에 반대한 이유는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국민의 뜻과 의지가 나눌 수 있다는 주장은 국민 주권의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나온 것이다. 루소는 국민 주권을 누군가가 대표하거나 대신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 루소는 민중이 직접 다스리는 일종의 '직접 민주주의'를 염두에 두었는지 모른다. 직접민주주의를 관철하려면 국가의 규모가 커서는 안 된다.

- 자유롭게 태어난 인간이 심한 노예 상태에 처해 있다. 이 한 마디는 모든 양심적인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놓았다. 그래서 루소가 죽은 후 그의 사상은 더 널리 퍼져나가 프랑스 대혁명의 이념이 되었다.

19. 자유의 범위와 한계를 논하다 ----- 밀 <자유론>

자유를 포기할 자유는 없다

민주주의와 자유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 다수가 소수의 의견에 재갈을 물리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경우 소수는 올바른 사실조차도 발표할 자유를 갖지 못한다. 민주국가에서 국민과 국민 사이에 암묵적인 폭력이 분명 존재한다. 그래서 밀은 언론과 사상의 자유에 주목한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는 왜 중요한가

- 정당한 사상을 권력이나 부당한 힘으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사상이라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상대의 사상을 탄압하다 보면 '죽여버린 독단'이 되어 생생한 진리가 될 수 없다. 형식상 정당하더라도 생기를 잃어버린 사상은 진리를 잃게 된다.

개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행위는 일체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관계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간섭할 권한이 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에 관해서는 개인은 당연히 사회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사회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옹호해주기 위해 사회적, 법률적 형벌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 애덤 스미스와 벤담에 의하면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존재다. 그러나 밀은 인간을 다르게 인식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따라 자신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밀에게 인간은 쾌락적 동물이 아니라 이성적 존재다. 그렇다고 밀이 인간을 전적으로 신뢰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밀은 자유의 중요성과 아울러 자유의 범위를 논한 것이다.

20. 정의란 공정성이다 ----- 롤스 <정의론>

'정의'가 철학 주제가 되다

- 플라톤은 한 국가를 이루는 세 계급, 즉 통치계급, 수호계급, 생산계급이 각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을 정의라고 했다. 외형적으로 신분에 따른 계급이 없어진 오늘날 사회에서 플라톤의 정의는 통용되기 어렵다.
-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의사 표현조차 제약하는 국가는 결코 정의롭지 못하다. 그러나 막연하게 공동체 내에서의 정치적, 도덕적 합의를 주장하는 마이클 샌델의 주장에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는 어려웠다.

좋은 것보다 옳은 것이 먼저다

-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이다. 개개인의 행복보다 정의가 우선한다. 그래서 롤스는 자신의 철학이 사회계약론의 전통을 잇는다고 말한다.

원초적 입장과 무지의 장막

- 전통적인 사회계약론과 달리 롤스는 자연 상태에서의 계약을 특정 사회 혹은 특정 형태의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원초적 합의의 대상은 정의의 원칙이다. 즉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최초의 평등한 입장에서 공동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원칙을 찾는 것이 원초적 합의라는 것이냐.
- 원초적 평등 상태에서 선택이나 결정을 해야 공정한 선택 혹은 결정이 된다고 롤스는 보았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자신의 이해에 입각한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지의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해를 가지고 다투지 않음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최선의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로운 선택이 이루어진다.

정의의 두 원칙

- 롤스가 말하는 첫 번째 원칙이란 시민권의 평등을 의미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의 자유, 재산권과 신체의 자유, 부당한 체포와 구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 등 시민의 기본적인 자유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차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원칙은 롤스가 도입한 독특한 개념이다. 차등의 원칙을 최소 수혜자 원칙이라고도 한다. 최소 수혜자 원칙이란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적 강자와 약자 사이의 차이를 최대한 좁혀야 한다

는 원칙이다.

5부 인간 삶의 지혜

21. 도덕의 실천은 의무다 ----- 키케로 <의무론>

선행과 현명함, 그것이 문제로다

- 見利思義 : 눈앞에 이익이 보일 때, 먼저 의리를 생각함. 맹자는 말한다. 이익이 아니라 도덕적 올바름을 선택하라는 것이다.
- 칸트 역시 마찬가지다. 칸트는 정언명법을 주장한다. 칸트는 도덕법칙이 수단으로 추구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했다.
- 키케로는 현명함이 아니라 선행을 선택하라고 한다.

공화정의 수호자

키케로의 네 가지 덕

- 키케로는 지혜, 정의, 용기, 인내를 네 가지 덕이라고 했다.
- 플라톤은 통치계급은 지혜, 수호계급은 용기, 생산계급은 절제의 덕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키케로는 네 가지 덕을 계급과 연관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실천해야 할 의무이자 규범이라고 했다. 그래서 칸트는 윤리학에 관한 한, 플라톤에서 배우지 않고 키케로에게서 배웠다고 했다.

윤리학의 선구자

- 키케로는 네 가지 덕 중에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과 가장 밀접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지혜를 가짐으로써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다. 키케로는 지혜와 관련하여 두 가지 오류를 피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하며 맹목적 동의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애매모호하고 어려워 필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많은 정력과 노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
- 키케로는 정의는 덕의 광채를 빛나게 한다며 중요시 하였다. 정의로운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고 했다. 자선, 친절, 관대함이 모두 정의와 결부된 말이라고 했다.
- 키케로는 용기와 인내란 마음의 혼란과 동요를 억제하고 본능적인 요구를 이성으로

복종시키는 능력이라고 했다.

- 키케로는 자신이 제시한 덕을 인간이 실행해야 할 의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는 이후 등장하는 윤리학의 한 흐름을 이끄는 선구자가 되었다.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고 도덕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윤리학의 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

22. 생명은 기계가 아니다 ----- 베르그송 <창조적 진화>

철학, 자연과학에 의존하다

- 칸트가 <순수이성비판>을 발표한 이후 철학의 중심 주제는 인식론이었다. 즉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주요 주제를 이루었다. 칸트는 진리를 알 수 있는 틀, 예를 들면 개념들이 선형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칸트는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래서 자연과학의 성과를 검토하면서 철학의 고유한 영역이 무엇인가에 대해 오랫동안 사색한 결과 자신의 학설을 내놓았다. 그런데 칸트의 제자를 자처한 철학자들은 칸트와 달리 인식론에 대한 탐구에서 세계 혹은 사물에 대한 탐구를 배제한 채 선형적 개념에 대한 탐구에 매달렸다. 그래서 세계와 사물에 대한 탐구를 자연과학에 미루어 놓았다.
- 한편 칸트와 다른 방향에서 철학을 추구하는 학파가 나타났다. 그 학파 역시 자연과학의 급속한 발전에 큰 영향을 받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영국의 철학자 스펜서였다. 스펜서는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경험주의 전통을 이어받아 자연과학의 성과를 철학에 반영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사회적 진화론'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회적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을 사회에 적용하여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사회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그런데 스펜서의 철학 역시 칸트 제자들의 철학과 마찬가지로 세계와 사물에 관한 탐구를 자연과학에 미루었다.
- 베르그송이 활동하던 시기에 철학은 대부분 세계와 사물에 대한 탐구를 자연과학에 미루어둔 채 자연과학의 성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거나, 아니면 그 성과를 그대로 가져오는 상황이었다. 베르그송의 철학은 이런 경향에 대한 도전이었다.

공부 잘하는 유대인

- 베르그송이 진화 앞에 창조를 붙인 이유는 진화론을 그대로 사회 이론과 철학에 적용하려 했던 스펜서의 철학에 반대한다는 의미였을 것이다. 스펜서의 철학에 따르면 적자생존의 법칙에 의해 어떤 수단을 쓰든 승리한 자가 정당화 된다. 스펜서의 철학은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에 철학적 토대가 되어주었다. 제국주의가 우월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국가들은 열등하므로 제국주의의 지배는 정당한 것이 된다.

- 생명현상에 대한 탐구 결과를 반성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식론과 생명론은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창조적 진화란 생명의 자유로움

- 베르그송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이론은 기계론과 목적론이다. 기계론은 생명을 일종의 기계장치로 보는 사고다. 베르그송은 생명의 진화를 통해 인간과 같은 유기체가 결코 단순한 기계장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특히 베르그송은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여 기계론에 반대한다.
- 목적론은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목적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이론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독일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예정조화설이다. 예정조화설은 인간을 포함한 우주 질서의 조화가 신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사물과 존재는 미리 그려진 계획을 실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베르그송은 목적론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만약 예측 불가능한 것이 없다면 우주에는 발명도 없고 창조도 없으며 시간도 불필요하게 된다. 기계적 가설처럼 여기서도 모든 것이 주어졌다고 가정한다. 이와같이 이해된다면 목적론은 거꾸로 된 기계론에 불과하다.
- 철학은 과학을 따라가면서 과학의 진리 위에 형이상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종류의 인식을 겹쳐놓아야 한다. 그러면 과학적이든 형이상학적이든 우리의 모든 인식은 되살아난다. 우리는 과학과 철학을 결합하여 점진적으로 발달시키면서 존재 자체의 심층에 도달한다.
- 생명은 지성에 관심을 갖게되고 지성에서 희망을 찾게 된다. 그러므로 진화는 자연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 외적인 어떤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창조적 진화란 생명의 자유로운 활동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다.

23. 돈키호테처럼 싸워라 ----- 우나모노 <생의 비극적 감정>

지조있는 철학자

우나모노는 돈키호테에게서 영웅성을 발견했다. 돈키호테를 이때까지 인간이 창조한 영웅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의 이상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삶에 대한 고민이 삶의 활력이다

- 우나모노는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이 부닥칠 수 있는 패배와 실의에 맞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싸우라고 한다.

- 인간이 삶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힘이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겠는가. 우나모노는 삶이 한정되어 있음을 엄연한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자고, 아울러 삶에 대한 고민을 삶의 활력소로 이용하자고 제안한다. 우나모노는 말한다. "인간이여, 기운을 내라! 죽은 이후의 일은 죽은 다음에 걱정하자. 지금은 '나는 살고 싶다. 영원히 살고 싶다.'는 열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삶과 뼈의 구성체를 에너지의 원천으로 이용하자.

사막에서 외치리라

- 우나무노는 돈키호테에게서 활력을 찾자고 했다. 돈키호테는 온갖 고민을 하면서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과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했다. 돈키호테가 가진 삶에 대한 의욕이야말로 인간이 이때까지 창조한 영웅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영웅의 기상이다.

24. 속됨 속에 성스러움이 있다 ----- 엘리아데 <聖과 俗>

종교는 인민의 아편일까

- 엘리아데는 종교를 알아야 휴머니즘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발언은 종교에 대한 그 이전의 이해와 다르다. 이전에는 종교는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억압하고 현실의 모순을 은폐하는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중세 서양에서는 종교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했고, 이에 반발해 르네상스가 일어났다. 마르크스는 종교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자본주의의 현실을 은폐한다고 비판하며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불렀다.

두 개의 공간

- 종교적 인간들은 공간을 크게 둘로 나눈다. 종교적 인간들에게 공간은 균질하지 않다. 어떤 공간은 다른 공간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느낀다. 종교적 인간들이 느끼는 두 개의 공간이란 성스러운 공간과 성스럽지 않은 공간이다. 비종교적 인간들도 공간이 균질하지 않음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곳, 첫사랑의 장소, 처음으로 방문했던 외국의 도시 등을 다른 공간과 다른 특별한 곳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세례식 때 물을 붓는 이유

- 세례식 때 물을 붓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종교적 인간들은 물이 생명을 최초로 낳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종교적 인간들은 물이 생명을 부여했다고 생각한다. 세례식 때 물을 뿌려줌으로써 성령이 물을 통해 흐른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25. 미래를 전망하지 마라 ----- 요나스 <책임의 원리>

유토피아냐 디스토피아냐

- 요나스는 1979년에 발표한 <책임의 원리>에서 인간이 자연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의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로메테우스, 쇠사슬에서 풀려나다

- 자유로워진 인간에게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된다는 것이 요나스의 주장이다. 왜 새로운 윤리학이 요구되는가? 과학의 발전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되었다. 실제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인간은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가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인간의 행복을 빼앗고 인간의 삶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가장 심각한 현상으로 여겨지는 지구온난화를 생각해 보라. 지구온난화는 인간이 과학기술을 지나치게 숭배하고 자연을 남용한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요나스는 말한다. “인간은 자연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며, 이제까지의 윤리학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공포의 발견

- 요나스는 전통적인 윤리학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만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한다. 요나스는 이러한 전통적인 윤리학을 '인간 중심주의'라고 했다. 요나스는 이제 관심을 자연으로 확장하여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배로 나타나는 새로운 현상에 맞는 새로운 윤리학을 정립하자고 주장한다. 요나스는 새로운 윤리학을 '생태윤리학'이라고 불렀다. 생태윤리학은 지금 여기의 인간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간에게도 방향을 제시하는 윤리학이다. 요나스는 생태윤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책임'을 내세웠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요나스는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 덧붙인다. 즉 지금 자신의 행위로 인해 나타날 미래의 결과까지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요나스의 이런 주장은 미래 세대에 대한 존중이다.

- 요나스는 인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려는 시각을 경계한다. 오히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불행에 더 주의를 기울이자고 한다. 요나스는 '공포의 발견술'이란 개념을 사용한다. 공포의 발견술이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함으로써 겸손해지고 나아가 미래에 나타날 불행까지도 예측하자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책임을

- 요나스는 인간의 미래에 대한 유토피아적 전망을 거부한다. 인류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자연을 남용한 결과 심각한 생태적 위기가 도래했다. 요나스는 유토피아적 전망이 과학기술에 대한 숭배를 더욱 조장하여 지구의 생태가 파멸적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우려했다.
- 요나스는 유토피아적 전망이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는 한, 오히려 희망보다는 위협이 된다고 했다. 현재의 인간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유토피아적 전망으로 오도하지 말고 불확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새로운 윤리에 입각하여 미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요나스는 미래를 전망하지 말고 미래 세대와 책임을 나누자고 말한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를 정립하자고 했다. 새로운 윤리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포함한다.